“볼 빵빵 ‘뭉밀이’로 행복 메시지 전해요”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① 현밀 스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자승 접목시킨 ‘뭉밀이’ 제작
캐릭터에 담긴 메시지는 ‘행복’
일상공감 이어 굿즈 제작 희망
MZ에 자연스럽게 불교 소개도

“도반들과 밭에서 울력을 하다 하늘을 봤는데 뭉게구름이 너무나 예뻤어요. 구름을 보며 위로받은 그날, 이를 이미지로 구현해야겠다 생각했죠.”

뭉게구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뭉밀이’로 최근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위촉된 현밀 스님은 “불교적 의미가 담긴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뭉밀이’ 탄생 배경을 알렸다.

‘뭉밀이’는 동글한 얼굴에 복스러운 볼을 가진 귀여운 동자 캐릭터다. 이름은 뭉개구름의 ‘뭉’과 현밀 스님의 ‘밀’에서 따왔다. 빵빵하게 강조된 볼을 보며 스스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스님은 ‘뭉밀이’를 주인공으로 다양한 일상을 그림으로 구현, 인스타그램 카툰(일명 인스타툰)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현밀 스님은 무더운 여름 짜증이 날만 하지만 수박 하나에 행복해하는 ‘뭉밀이’를 보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무언가로 짜증을 날려버릴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또 방긋 미소, 해맑은 목소리가 담긴 인사야말로 행복한 하루를 위한 소소한 보시라고 설명하며 인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기대해보자고 응원하기도 한다.

인스타툰을 포스팅하며 간단한 메시지도 함께 남긴다. 불교가 어렵지 않게, 또 자연스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밀 스님은 “세상을 바꾸게 하는 것은 ‘공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기공감, 세대공감, 환경공감을 하며 불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밀 스님은 ‘뭉밀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고 위로,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현밀 스님은 자신에게 불교는 곧 행복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스님은 졸업과 함께 100일 동안 3000배를 경험하면서 ‘출가를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독실한 불자였던 부모님과 고모 덕분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던 스님은 가족들의 응원 속에 2016년 행자생활을 시작했고 2017년 수계했다.





인스타그램에 연재되고 있는 ‘뭉밀이의 일상툰’ 中. <현밀 스님 제공>

이후 학업에 열중하면서 틈틈이 그림 그리기를 즐겼던 스님은 수업에서 사용할 패드를 구매하면서 일러스트에도 눈을 떴다. 수년간 공부와 수행으로 지쳤을 때, 또 일상생활 중에 떠오른 것들을 기록해놨다가 하나씩 그려왔던 것들이 ‘뭉밀이’로 구현됐다.

현재 청도 운문사에서 도감(都監)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곧 습의사 소임도 맡게 된다. 거기에 창작활동까지 하고 있으니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N잡러’다. 출가 6년째. “불교를 통해 나다운 것이 뭔지, 수행자다운 것이 뭔지 알게 됐다”고 말한 현밀 스님은 “진실한 삶을 통해 소소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다.

‘N잡러’ 일상 속에서도 스님은 6월말부터 주 1회씩 인스타툰을 통해 불교 일상을 전하고 있다. 스님은 “일과 도중 잠시 쉬는 동안 그림연습과 함께 콘티를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까, 어떤 구성과 내용으로 감성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지웠다 그렸다를 반복한다”면서 “바쁜 일상 속에도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뭉밀이’를 통해 스님의 수행생활과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위로,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는 게 현밀 스님의 희망이다.

뭉밀이 캐릭터를 활용해 인스타툰뿐 아니라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 이모티콘을 비롯해 스티커, 키링, 수행노트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길 기대한다.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위촉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과도 협업을 통해 불교를 더욱 신선하게 알리고 싶다는 서원도 생겼다. 스님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 불교 창작물들이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네이트’,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위촉

7월 3일, 멤버 8명에 위촉장 수여
스리랑카에 책상·의자 80개 후원

조계종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 홍보대사로 보이그룹 루네이트(LUN8)가 위촉됐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은 7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루네이트 멤버 8명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달빛을 품은 8명의 소년’이라는 의미를 가진 루네이트는 진수, 이안, 은섭, 카엘, 준우, 도현, 타쿠마, 지은호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루네이트 멤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응원했다. 그러면서 “8명 멤버를 직접 만나 보니 모두가 멋지다”면서 “BTS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덕담했다.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로 위촉된 루네이트는 7월 3일 스리랑카에 책상과 의자 80세트를 전달했다.

위촉식에서 루네이트는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국가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어린이들을 위해 단칸다 초등학교(Dankanda Maha Vidyalaya)에 책상과 의자 80세트를 전달했다.

진우 스님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달빛처럼 세상의 빛이 되겠다는 루메이트의 소망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고 덕담하자 그룹의 리더 진수 씨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 감사하다.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홍보대사에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멤버 카엘 씨도 “데뷔 전부터 기부를 하고 싶었다”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 영광”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과 후원을 계기로 좋은 변화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면서 “조계사서 기도 많이 하면 불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어려운 연습생 시절을 이겨내고 데뷔한 멤버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스님은 “태풍과 장마, 땡볕을 견뎌내야 열매가 여물 듯 현재를 성실히 임해야 여유로운 삶도 올 것”이라며 “쉽게 지치지 말고 마음을 다잡으면 행복은 배가 될 것”이라고 덕담했다.

위촉장 수여식 후에는 멤버들 한 명 한 명 손목에 단주를 채워줬다. 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제작한 108 명상집 ‘가만히 눈을 감고’를 선물했다.

한편 루네이트는 6월 15일 데뷔앨범 ‘컨티뉴’를 발매하며 데뷔했다. 타이틀곡인 ‘와일드 하트’와 ‘보이저’로 강렬하면서도 패기 있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데뷔앨범 발표와 동시에 네덜란드 톱 앨범 차트 1위 등을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임은호 기자

2023년 청소년 영화캠프 동참자 모집

7월 31일~8월 4일…중1~고2 신청가능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 주최하고 동국대 영상대학원이 주관하는 2023 청소년 영화캠프가 7월 31일~8월 4일 동국대에서 진행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영화캠프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영상교육과 실습을 통해 직접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미래 영상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K-컬쳐의 청소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청소년영화캠프는 현업 감독의 영화제작 특강을 시작으로 영화 기획 및 시나리오 작업, 촬영과 편집을 통한 영화 실 제작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제작한 작품은 ‘2023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기간 중 청소년 영화캠프 시사회를 통해 대한극장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접수는 7월 10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중1~고2)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7월 15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02)2264-0160 임은호 기자

주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불교문화 만나다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
6월 29~30일 보은 법주사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체험해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전통불교문화를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보은 법주사에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협력해 글로벌 문화기획단 ‘아우르기’ 단원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관계자는 “글로벌 기획단 ‘아우르기’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주도적으로 문화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전통사찰이라고 생각해 법주사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총 21개국 50여 명의 유학생 단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법주사 팔상전, 쌍사자석등을 비롯한 불교문화유산 탐방과 싱잉볼 명상, 108배와 연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신성민 기자

로터스월드·더프라미스, 협력 인재 모집

라오스 KOICA 운영 등 수행
7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들이 올해 하반기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할 인재를 모집한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2023년도 하반기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 사업’에 함께할 영프로페셔널(YP)를 모집한다.

세부업무는 △라오스 KOICA사업 운영 및 통계 분석, 회계 정산 관리 보조 △사업수행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유튜브 등 SNS 관리 등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면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8월 1일부터 20024년 2월 29일 약 7개월간이다. 로터스월드 홈페이지(www.lotusworld.or.kr)에서 입사지원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이메일(mitra@lotusworld.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접수는 오는 7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02)725-4277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도 해외봉사단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 함께 지원해 나갈 영프로페셔널를 모집한다.

주요 담당업무는 △KOICA-NGO 봉사단 에듀콥스 홍보 지원 △청년사회혁신학교 강사 섭외 및 보고서 작성 등 운영 보조 △재난 및 긴급구호 발생에 대비한 훈련 지원 및 참가 등이다. 070-4903-8105 임은호 기자

인천 지선사, 올해도 동국대에 1000만원

건학위 ‘지역미래장학’ 기금 전달
인천 지역 재학생 10명에 장학금



인천 지선사(주지 덕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국대에 1000만원을 쾌척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는 7월 5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선사 2기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며,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 지난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이날 43회를 맞이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지선사는 대표적인 자비나눔 도량으로 명절맞이 기부, 소외계층 반찬나눔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선사는 지난해 장학금을 수여받고 활동을 열심히 한 1기 장학생 3명과 신규 장학생 7명 등 총 1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전달해주신 지선사 주지 덕환 스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한다”며 “동국대 장학제도 중 가장 신의 있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의 장학생이 된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동국인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덕환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진명 스님은 “덕환 스님은 평소 인천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다”며 “덕환 스님은 동국대의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를 통해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강수빈(경제학과 4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지선사와 덕환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강수빈 학생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받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경주 흥륜사서 고려 공양구 54점 출토

경주시·춘추문화재연구원
흥륜사 서편 조사현장 발굴
통일신라~고려 건물지 확인


경주 흥륜사 서편에서 발굴된 청동 공양구 일부.

경주 흥륜사 서편에서 고려시대 공양구 유물이 대거 출토됐다.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재)춘추문화재연구원(원장 양인철)은 “경주 사정동 소재 흥륜사 서편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위한 발굴조사 중에 통일신라~고려시대 사찰 관련한 건물지와 담장지, 우물 등의 유적과 청동 공양구 등 다양한 유물을 확인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현재 흥륜사가 자리한 곳은 사적 ‘경주 흥륜사지(興輪寺址)’로 지정돼 있으나, 사찰 주변에서 ‘영묘지사(靈廟之寺)’명 기와가 다수 수습돼 학계와 지역에서는 ‘영묘사지’로 보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 건물의 적심과 담장지 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유물이 발견된 곳 역시 사역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흥륜사(興輪寺)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칠처가람(七處伽藍) 중 하나로 고구려 승려 아도(阿道)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차돈의 순교로 중창(527~544)돼 국가 대사찰로 유지되다가 조선시대에 소실로 폐사됐다. 영묘사(靈廟寺) 역시 신라 칠처가람 중 하나로 선덕여왕 때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며, 조선시대 초기에 폐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기와, 토기 조각들을 비롯해 청동 공양구 등을 넣은 철솥이 매납된 채 확인됐으며,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과 추정 ‘영묘사(靈廟寺)’명 기와 조각 등이 출토됐다.

특히 철솥 내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려시대 청동 공양구와 의식구들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철솥은 지름 약 65cm, 높이 약 62cm의 크기로 외부에 4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안에는 작은 기와 조각들이 섞여 있는 흙이 30cm 정도 차 있었고, 그 아래에서 청동 향로, 촛대, 금강저 등 고려시대 불교공양구와 의식구 등이 확인됐다.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유물은 모두 54점이며, 일부 유물은 부식돼 철솥 바닥부분에 붙어있는 상태라서 정확한 상태가 아직 파악되지는 못했다. 앞으로 보존처리 과정에서 더 많은 유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춘추문화재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신성민 기자